

北韓의 農水産業 및 食品工業現況

(I)



이 인 수
(건설본부실)

I. 서 언

북한은 우리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기만 하였던 이웃이었으나 최근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정책에 따라 온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얼마전 북한산 무연탄이 인천항으로 들어온 것을 비롯하여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명태의 수입이 승인된 것이 매스컴을 통하여 전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며 이 외에도 북한산 냉동오징어, 염장명란, 인삼차, 사주, 담배 등도 수입을 위하여 협의중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 식품과학인들은 북한의 농수산업 및 식품공업 부문에 관한 현황을 알고 남북한이 상부상조 할 수 있는것 또는 우리가 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관련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북한 관계자료들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고 대학에 북한학 강좌 및 북한학과를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나 접할수 있는 북한 관련 자료는 제한되어 있고 보고된 각종 통계들은 출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우나 북한의 농수산업 및 식품공업 분야에 관한 발전과정과 현황 등을 다소나마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내용중 북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우리가 이

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은 용어의 밑에 줄을 그어 표시하고 용어의 뒷편에 해설을 적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저, 옥쌀(옥수수쌀), 식료공업(식품공업), 고기떡(어묵류) 등과 같이 표기하였다.

부족하나마 본 조사내용으로 하여금 북한의 농수산업 및 식품공업 부문 등에 관한 발전과정 및 현황에 대하여 개략적인 지식을 얻을수 있기를 바란다.

본 자료는 분량이 많아 I, II로 구분하여 게재함을 이해바랍니다. <편집자 註>

II. 북한의 농수산업

1. 발전과정

8·15 당시 북한지역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자원을 이용한 전력·금속·화학공업 등이 배치되어 있었던 반면 남한지역에는 주로 농업지대와 약간의 경공업 시설들이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남한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 중간재의 상당량을 북한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었으며, 북한지역의 부족한 식량은 남한지역에서 공급받는 등 지역적 보완관계가 이루어 졌었으나 남북 분단으로 이와 같은 보완관계는 상실되어 남북한 모두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받았음은 사실이다.

표 1. 북한의 경제계획과 변천과정

구 분		기 간		비 고
1기	경제체제 정비기	'45~'46	2년	
2기	경제계획 시련기 동란기	'49~'53	5년	
3기	전후 복구기	'54~'56	3년	
4기	5개년계획기	'57~'60	5년	· 농업의 집단화
5기	제1차 7개년계획기 3개년 연장	'61~'67	7년	· 중공업의 우선 · 경공업과 농업의 병행발전
		'68~'70	3년	
6기	6개년계획기 (완충기)	'71~'76.	6년	· 기술혁명 · 중공업 우선 발전 · 식량증산 강화
		'77	1년	
7기	제2차 7개년계획기 (조정기간)	'78~'84	7년	· 기술의 현대화·과학화
		'85~'86	2년	
8기	제3차 7개년계획기	'87~'93	7년	· 경공업 생산확대

자료: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북한학보 제12집(1988)

북한은 6·25 동란이 끝난후 1954년에 3개년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생산을 1949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복구에 전력을 다 하였으나,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의 급속한 복구발전을 도모한다는 기본 정책에 따라 기본 건설투자를 공업부문에 집중하여 대규모 공장의 복구건설과 기술인력의 양성에 주력하였으므로 농업부문에서는 곡물생산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던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고 한다.

북한은 1947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여 왔으나 계획경제 형태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1957년~1960년의 5개년 계획기부터였다. 북한의 경제계획과 변천과정은 표 1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상기의 경제계획 단계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제1차 7개년계획기에는 농업은 목표의 57~67%, 수산업은 50~70% 밖에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6개년계획기의 실적은 곡물 850만톤(목표량: 800~850만톤), 육류 55만톤(목표량: 40~50만톤), 수산물 100만톤(목표량: 160~180만톤), 화학비료 300만톤(목표량: 280~300만톤) 그리고 트랙터는 30,000대(목표량: 21,000대)를 각각 생산하였다.

제2차 7개년계획기에는 곡물 약 944만톤(목표량: 1,000만톤), 수산물 약 352만톤(목표량: 350만톤) 그리고 화학비료 약 460만톤(목표량: 500만톤)을 기록함으로써 1977년 대비 각각 118%, 220%, 156%로 신장되었다. 그리고 8기인 제3차 7개년계획기(1987~1993년)의 목표를 보면 곡물 1,500만톤, 수산물 1,100만톤, 화학비료 720만톤 그리고 30만 헥타의 간척지 개간을 계획하고 있다.

1988년도의 중점 경제과업으로써 농업부문에서는 농촌 4대 기술혁명 추진과 간척지 개간, 새 땅찾기 운동전개 등을 내놓았으나 북한은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노동력의 최대 동원 등을 하여야 했으며, 1988년의 농업부문 성장은 1987년의 2.6% 보다 높은 4% 정도의 성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식량생산도 정곡으로 환산하여 약 515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수산물 생산은 1987년도 대비 125%의 생산증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경제개발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GNP의 성장 추세를 살펴보면 표 2에서와 같이 북한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경제역량이 월등히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남북한 GNP 변화추이

구분 \ 연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6	1987
GNP (억달러)	한 국	20	30	80	209	603	837	951	1,186
	북 한	15	23	40	94	135	151	174	194
1인당 GNP (달러)	한 국	79	105	252	590	1,589	2,047	2,296	2,826
	북 한	137	192	286	579	758	765	860	936

자료: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1988)

2. 농수산 정책 및 관리조직

가. 농업부문

북한의 기본 농업정책은 1946년 토지개혁 실시, 1958년의 농업협동화 완성, 1964년 이후의 국영화 추진 등으로 시기를 크게 대별할 수 있다. 토지개혁의 실시로 북한의 농민들은 실제로 토지의 소유자라고는 말할 수 없고 다만 토지 경작만이 인정되어 농업협동화를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었으며,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농업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하여 1958년에 와서는 북한의 전 농촌을 일정한 지역단위로 묶어 협동농장을 만들으로써 농업의 협동화가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북한은 1964년 농업을 한단계 발전시킨다는 명목하에 농업의 협동적 소유형태를 전 인민적 소유형태, 즉 국유화로 접근시킬 것을 농업정책의 기본 목표로 세우고 농촌 4화사업(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전기화)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국유화에로의 이행 방법으로 특용작물, 과수, 잡업, 축산 등 특산 단지로 형성된 기존 국영농·목장을 증설하는 한편 일부 영농조건이 양호한 지역이나 개발전망이 기대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국영농장화 하고 여기에 자금, 물자, 인력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진하였다고 한다.

북한은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농업생산이 침체되자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개편하고 도 단위에는 농

촌경리위원회, 군 단위에는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리 단위에는 협동농장 관리위원회 등의 조직을 갖추고 농업관리 체계를 일원화 하였으며 기본생산 단위로는 협동농장과 국영농 목장을 두고 있다. 이들 조직별 기능을 약술하면, 농업위원회에서는 농업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농업부문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면서 주로 농업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와 농촌개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이 외에 농업부문의 과학연구 사업과 간부양성사업 및 자연개조 사업을 직접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도 농촌경리위원회는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와 국영농·목장 등 도내의 농업부문을 전반적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그 임무는 농촌사업에 대한 계획작성의 지도, 생산 및 기술지도, 국가계획위원회로부터의 영농자재의 수령 및 공급, 도내 농작물의 지역적 배치 및 토양과 농작물의 특성에 따르는 작물배치·종자선정과 시비체계 수립 등의 기술적 지도를 맡고 있다.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군내의 모든 물질 기술수단과 기술집단을 장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기본단위로서 농업기술자와 전문가들의 관리와 농기계작업소, 농기구 공장, 관개 관리소, 종자 관리소, 종란장, 배합사료 공장 등의 농업 지원기관들을 관리하고, 협동농장들의 경영활동을 현지에서 직접 조직하며 관리하는 군 단위의 지도기관으로써 농업관리 체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이며, 농업경영의 기본 단위인 협동농장 관리위

원회는 행정구역상 리 단위에 1개소씩 조직되어 있다. 1970년 현재 협동농장 수는 3,667개 였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협동농장은 농산작업반 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도록 과수·잡업·원예·채소·축산 등의 전문 작업반도 조직되어 있다.

또한 국영농·목장은 주로 가축·과일·연초·인삼 등의 상품화 될 수 있는 농작물을 사육·경작하는 한편 새로운 영농기술을 도입하고 다수확 우량종자와 우량종축 및 묘목 등을 생산하여 도내에 있는 각 협동농장에 보급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70년 현재 국영농·목장수는 193개소 였다.

북한의 축산업은 크게 나누어 국영축산과 협동농장 공동축산 그리고 농민들의 부업축산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영축산은 가축별 특성에 맞는 기후·입지 및 수급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한 국영 및 도영목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들 목장은 중앙의 농업위원회 또는 도 농촌경리위원회의 관장하에 사육하는 가축과 토지를 비롯한 일체의 생산수단을 국유화 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동 목장은 국가기업소이다.

북한은 1963년 국영농·목장의 농산과 축산을 분리하여 전문화 하고 도시와 공업중심지에 육류 및 계란생산 기지(양계장)를 확대하는 한편 가축별 종축장을 배치하였으며, 1965년에는 농업위원회에 축산총국과 가금총국을 신설하여 국영목장, 종축장 및 사료공장 등의 운영을 전담하고 있었다. 공동축산은 협동농장의 종축작업반이나 농산작업반에 축산분조를 두고 소·돼지 등의 사육을 전문화 하였고, 1961년에는 축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개인 부업축산을 장려하였고, 1971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학교, 사회단체 등에도 가축사육을 의무화 했다고 한다.

가축 사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야산과 공한지에 재배한 호박 등과 산에서 채취한 칩·싸리 등과, 그리고 벗짚·옥수수대 등을 분쇄하여 발효처리한 것을 사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곡물사료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토끼·오리·양·산양 등의 초식 가축사육을 적극 권장하였다.

나. 수산업 부문

북한은 식생활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수산물 생산증대에 노력하여 왔으며 1970년대 이후부터는 주요 수출산업 품목으로 설정하여 생산제고에 주력하여 왔다. 이에 따라 수산물 생산 극대화를 위하여 원양어업의 발전, 수산업의 과학화, 천해 양식사업의 집중육성 및 수산물 가공사업을 강화하여 생산지 및 소비지에 냉동공장 및 저장고의 건설 확대로 원활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하였고, 수산물 공급에서의 계절적 제약성을 극복한다는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수산업의 관리지도 체제도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중앙지도 체제를 기본으로 국영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의 관리체제를 보면 중앙의 수산위원회와 그 산하의 협동수산총국을 비롯하여 도 단위에는 협동수산 이사회가 있는데, 1981년말 현재 국영 수산사업소와 국영 잠수사업소는 61개소, 그리고 수산협동조합은 약 230개소가 있었다. 국영 사업소의 도별 분포는 함경북도 14개소, 함경남도 19개소, 강원도 8개소, 평안북도 7개소, 평안남도 5개소 그리고 함해남도 8개소가 있었다.

3. 생산기반

가. 농업부문

북한의 국토 면적은 12만2천여 Km²로서 남한의 9만9천 Km² 보다 다소 넓으나 국토의 이용면에서 보면 북한은 산악지대가 많고 산림산맥을 분수령으로 하여 동서로 분리되어 있어 평야지대가 비교적 많고 기후조건이 좋은 한국에 비하여 농업생산 및 교통운수 등이 불리한 조건이다.

1987년 현재 북한의 총 경지 면적은 표 3에서와 같이 214만 정보이며, 이중 논과 밭의 비율은 약 30 : 70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과는 정반대의 전담비율을 가지고 있다.

표 3. 영농부문 주요지표

구분	경지면적(만정보)			농업인구 (만명)	농기계보유수 (천대)	
	논	밭	계		동력경운기	트랙터
한국	135.2	79.1	214.3	340.0	711	20
북한	64.4	149.6	214.0	310.0	-	138

자료 :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1988)

한편, 화학비료의 공급 실태를 보면, 북한은 일제하에 건설된 흥남비료공장을 비롯 청년화학종합공장, 아오지화학공장 등에서 화학비료를 생산하고 있어 대내 수요의 충족은 물론 수출도 하고 있으나, 카리비료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지면적이 제한되어 있고 기후조건이 불리하여 식량증산의 한계성이 있어 경지면적 확장을 위하여 간석지 개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위원회에 간석지 건설총국을 두었고 서부지역의 각 도에는 간석지 건설사업소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은 농업생산의 성장을 목적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조속다수확 품종의 육종 및 채종 사업을 강화하고자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련·중공 등과의 공동연구로 K-424, 용성 1·2호를 개발한데 이어 1979년 말에는 농업과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신품종 법씨를 개발하였으나 이들 품종은 도복이 심하고 병충해에 약할 뿐 아니라 정보당 생산량도 3톤에 불과하여 큰 성과가 없었다고 하며, 1980년대 부터는 필리핀 소재 국제미작연구소, 태국의 농업시험장, 이태리 등지에 전문가와 시찰단을 파견하는 등 신품종 입수 및 개발에 힘입어 선봉 9호·평양 8·15호 등과 같은 조속다수확 품종도 개발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한의 축산물 생산활동은 전장에서 언급했듯이 국영축산, 공동축산(협동농장), 농민들의 부업축산 등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일생산 기지로는 1974년 현재 37개의 국영 과수농장과 협동농장의 작

업반 및 분조 단위로 과수원을 조성하여 총 30만 정보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한다.

2. 수산업 부문

북한지역의 동·서해는 모두 수산자원이 풍부하며 이중 동해에는 한류와 난류가 남북으로 유입되어 어류의 서식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회유성 및 정착성 어류가 많이 서식하여 세계 3대 어장의 하나로 되어 있다. 명태·고등어·낙지·이면수 등이 주요 어종이며, 특히 명태는 동해지역 어획량의 60~70%를 점하고 있다. 북한은 동해의 어획은 저인망어업 방법에 의존하고 있고, 서해에서는 주로 안강망어업 위주이나 기타 여러 어법을 병행하고 있다. 1987년말 현재 북한의 어선 보유수는 동력선 2만1천여 척을 포함하여 총 3만척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원양어업은 오호츠크해를 중심으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으나 동어장은 세계 3대 어장의 하나이며 주 생산 어종은 명태이고, 연간 어획고는 20만톤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호츠크, 캄차카만 일대에 진출하는 북한 어선은 냉장운반 및 가공모선, 선미트롤선으로 선단을 편성하여 주로 명태·칭어·가재미 등을 어획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소련, 일본, 이란, 아프리카 및 남미 연안에 위치한 나라들과의 어업 협력을 추진하여 원양어장 확보 및 수산물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에 노력하고 있다.

4. 생산실적 및 현황

가. 농업생산

북한은 식량증산을 위주로 하면서 가공용 원료의 공급 또는 외화획득을 위한 원천으로 공예 및 특용작물, 축산, 과수, 잡업에 주력하는 등 농업의 다각적 경영을 추진하여 왔으나 계속 강행된 중공업 우선정

표 4. 남북한 식량작물 생산실적

(단위 : 정곡기준 천톤)

연도	한국			북한		
	곡물	서류	계	곡물	서류	계
1970	6,160	783	6,943	4,000	306	4,306
1971	6,085	707	6,792	4,060	269	4,329
1972	6,069	674	6,743	3,780	256	4,036
1973	6,148	611	6,759	4,140	243	4,383
1974	7,464	543	8,007	4,172	289	4,461
1975	7,932	740	8,672	4,213	215	4,428
1976	7,535	671	8,206	4,273	208	4,481
1977	7,402	603	8,005	4,540	221	4,761
1978	7,663	565	8,228	4,357	212	4,569
1979	7,611	501	8,112	4,574	223	4,797
1980	4,905	431	5,336	3,710	200	3,910
1981	6,471	455	6,926	5,105	263	5,368
1982	6,449	369	6,818	5,189	270	5,459
1983	6,661	472	7,133	3,990	270	4,260
1984	6,950	365	7,315	5,373	227	5,600
1985	6,576	414	6,990	4,810	220	5,030
1986	6,449	325	6,774	4,625	200	4,825
1987	-	-	6,687	-	-	4,952

자료 :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1987, 1988)

표 5. 북한의 연도별 과채류 생산실적

(단위 : 천톤)

구분	1976	1983	1984	1985	1986	년평균증가율(%) ('76~'86)
과일 총생산	649	1,020	1,086	1,133	1,184	6.0
채소 총생산 (멜론포함)	1,947	2,545	2,687	2,821	2,917	4.3
— 양배추	298	260	370	378	388	2.2
— 토마토	33	49	53	56	59	6.4
— 양파(건조)	22	33	35	37	39	6.5

자료 : FAO 한국협회, 아·태지역 식량농업개발지표(1976-1986, 1988)

책의 결과 농업생산은 큰 진전이 없었다.

북한은 식량생산 실적을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조곡개념인 알곡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알곡의 범위와 한계가 모호하여 구체적인 생산 통계의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이 말하

는 알곡은 논벼·옥수수·맥류·두류·서류·수수·조 등을 칭한다고 한다.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표 4에서와 같이 1986년의 경우 곡물이 4,625천톤이고 서류가 200천톤으로 총 4,825천톤을 기록하였는데, 이중 옥수수가 차

표 6. 북한의 연도별 가축사육 및 우유·달걀 생산현황

구 분	단 위	1976	1983	1984	1985	1986	년평균증가율(%) (’76~’86)
소	천 두	850	1,000	1,025	1,100	1,122	2.6
돼지	천 두	1,700	2,500	2,700	2,800	2,920	5.8
양	천 두	268	330	340	350	359	3.1
염소	천 두	200	256	260	265	272	3.0
닭	백만수	17	18	18	18	19	0.5
우유	천 톤	30	68	70	75	79	9.6
달걀	천 톤	75	115	120	125	130	5.2

자료: FAO 한국협회, 아·태지역 식량농업개발지표(1976~1986, 1988)

표 7. 북한의 연도별 농산물 수출입 실적

(단위: 천불)

구 분	1975	1982	1983	1984	1985	평균증가율(%) (’75~’85)
수입액	199,240	208,335	167,025	142,060	126,140	- 1.9
수출액	149,150	116,900	74,660	50,905	20,050	12.0

자료: FAO 한국협회, 아·태지역 식량농업개발 지표(1976~1986, 1988)

지하는 양은 49%인 2,371천톤이므로 쌀의 생산량은 약 2,000천톤 정도로 추정되어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총 식량작물 생산량인 6,774천톤중 약 84%인 5,607천톤이 쌀의 생산인 것으로 보아 북한의 쌀 생산량은 우리의 약 35% 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산이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산을 이용한 과수원 조성에 주력하여 왔으며, 북한에서 주로 재배되어 온 과일류는 사과와 배이나 과일 종류의 다양화를 추진함으로써 지난 1970년부터는 울과일(복숭아, 딸기, 살구, 대추, 앵두, 양벚 등)과 늦과일(사과, 배, 감, 대추, 포도 등)의 재배 면적이 20:80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재배되고 있는 사과의 품종으로는 안주·금강·허천·송화·북청·단천·덕정 사과 등이 있고, 배는 함경남도 청평군 선덕 과수농장의 참배가 유명하며, 그리고 감의 주요 재배지역으로는 강원도의 안변·고성·통천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연도별 과채류의 생산 실적을 보면 표 5에 서와 같이 1986년의 경우 과일은 118만여톤 그리고 채소는 292만여톤을 기록하였다.

과류 및 과일 등은 수확수의 관리방법에 따라 손실되는 양은 차이가 크므로, 북한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연구 개발하고 우리 농촌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양곡건조 및 저장을 위한 개량곳간과 농가용 표준 과실 저장고의 건립 및 관리기술 등을 북한의 과학기술자를 통하여 농민에게 실용적인 기술이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의 두가지 기술은 이미 중국대륙의 과학기술자에게 소개되었으며, 그들은 중국에서도 이 기술이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풍토나 생활방식이 보다 우리와 가까운 북한 농민의 경우, 적절한 기술지도와 재정지원만 있으면 북한에서의 이들 기술의 보급은 시간 문제이며 가장 적은 투자로서 실질적으로 북한 농민을 도울 수 있는 인간적인 기술이전이 될

표 8. 북한의 연도별 어업생산 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1975	1982	1983	1984	1985	년평균증가율(%) (’75~’75)
내수면어업생산량	50	85	90	100	110	7.9
해면어업생산량	1,000	1,465	1,510	1,550	1,590	4.8
양식어업생산량	-	-	-	809	809	-
총 어업 생산량	1,050	1,550	1,600	1,650	1,700	5.0

자료 : FAO 한국협회, 아·태지역 식량농업개발 지표(1976~1986, 1988)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돼지, 소, 닭, 오리 등의 가축 및 가금류가 육류의 공급을 위하여 주로 사육되고 있으며, 연도별 사육 및 우유·달걀생산 현황은 표 6과 같다.

참고로 과거 10년간 북한의 농산물 수출입 실적을 보면 표 7에서와 같이 수입액 및 수출액 모두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외와의 농산물 수출입 활동은 극히 둔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수산업 부문

북한은 수산물을 식생활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보고 6개년계획기(1971~1976년)에서 수산물 생산목표를 연간 160~180만톤으로 설정하여 지난 1975년에는 160만톤을 달성하였으며, 제2차 7개년 계획기(1978~1984년)에는 연간 350만톤을 달성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믿어지지 않는다.

한편, 1980년대 10대 전망목표에서는 수산물 생산목표를 연간 500만톤, 그리고 제3차 7개년계획기(1987~1993년) 중에는 연간 1,100만톤으로 목표를 대폭 늘려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수산물 생산에 큰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수출에 의한 외화

획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북한의 연도별 어업생산 실적에 대한 FAO 조사 보고 내용을 보면 표 8에서와 같이 1985년까지 연간 200만톤 이하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1987년 남북한 수산업 부문 비교

구 분	한 국	북 한
· 수산물생산량(천톤)	3,332	2,123
— 해면어업	2,338	1,157
— 양식어업	866	871
— 내수면어업	57	95
· 어선보유수(천척)	94.2	30.1
— 동력선보유	74.8	21.0

자료 :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1988)

1987년의 수산물 생산량은 표 9에서와 같이 약 212만톤으로서 한국의 60% 수준이며, 어선 보유수는 약 3만척에 이르고 있다. 어업 형태별 생산에 있어서 천해 양식어업 생산이 전체 생산량의 40% 수준으로 높은 것은 소련과 공동으로 천해양식기업소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북한이 양식 부문의 생산 및 기술제고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음 호에 계속)